

## 又顧 李泰魯의 『勉菴集抄』와 자료적 가치

### 구사회\*

#### <차 례>

1. 머리말
2. 이태로의 생애와 면암 관련 자료
  - 2.1 생애와 민족의식
  - 2.2 면암 최익현의 관련 자료
3. 『면암집초』의 가사 작품들
  - 3.1 면암의 순국과 추모가사들
  - 3.2 <매국찬양가>의 반어적 어법
4. 『면암집초』의 자료적 가치
5. 맺음말

### 1. 머리말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필사본 『면암집초부제가서(勉菴集抄附諸家書)』(이하 『면암집초』)의 1권은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했던 한말의 면암 최익현(1833~1906)에 대한 관련 기록물이다. 주지하다시피 면암 최익현은 19세기 서세동점의 역사적 격변기에 척사위정의 선봉에서 반외세를 부르

짚던 조선말기의 유학자이다. 이것들은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을 전후로 면암의 상소문이나 격문 등을 호남 문인이었던 우고 이태로(1848~1928)가 모아 놓은 자료집이다.

여기에는 『만세보』나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당대 언론이 보도했던 면암과 관련된 사건 기사, 선생이 백성들에게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것에 따른 절망적인 결과를 호소하는 내용, 을사오적을 비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는 지금까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애국계몽기의 가사 작품들도 있어서 주목된다. 1906년 11월에 면암이 대마도에서 순국하자 전국적으로 선생을 추모하는 열풍이 있었다. 여기 기록된 선생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학도들의 가사 작품들도 그것의 하나이다. 그리고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나서 을사오적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을 자찬하는 반어적인 내용의 가사 작품인 <매국경축가>도 여기에 실려 있다.

『면암집초』의 편자인 우고 이태로는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우고의 문집인 『우고선생유고』를 살펴보니, 그는 조선 말기부터 일제식민지 시대에 걸쳐 살았던 문인이다. 우고는 노사 기정진이 세상을 떠나기 일 년 전에 선생에게 나아가 공부를 하였는데, 그가 면암 최익현에 대한 자료들을 수집해 놓은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우고 이태로가 어떤 인물이며 한말 전후의 역사적 격변기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우고가 수집해놓은 『면암집초』의 1권이 어떤 자료집들인지 서지를 개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의 가치는 여기에 수록된 새로운 가사 자료에 있다고 본다. 이들을 검토하면서 면암의 충절을 추모하는 가사 작품들과 을사오적이 매국을 자찬하는 반어적인 내용의 <매국경축가>도 살펴보고자 하겠다. 다만 본고는 이들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면암 자료

\* 선문대학교

를 발굴하고 소개하는 해제적인 성격의 논문임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2. 이태로의 생애와 면암 관련 자료

### 2.1 생애와 민족의식

우고 이태로는 현종 14년(1848) 3월에 전라도 나주군 지죽면 계양리에서 아버지 이경근(李擎根)과 어머니 이천서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 이름은 태로(泰魯)이고 자는 도관(道寬)이며 又顧는 그의 호이다. 본관은 전의인데, 우고는 태조 왕건을 도와 개국공신에 봉해졌던 시조 이도(李棹)의 28세손으로 알려졌다. 우고 집안이 호남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김종직의 문인이었던 14대조 李永祥이 戊午士禍를 피해 나주로 낙향하면서 비롯되었다. 아버지 고암(顧菴) 이경근은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었는데 효성으로 이름이 높았고, 문집인 『고암집(顧菴集)』과 『고암가훈(顧菴家訓)』을 남겼다.

우고는 5세에 친모가 별세하자 계모인 광산김씨에 의해 친자식 이상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글자의 旨義를 탐상하였다고 전한다. 12세에 외삼촌이었던 徐松隱의 서당에 나아가 공부를 하였다. 송은공은 우고가 언젠가 학문을 이룰 것으로 예단하였다. 우고는 18세(1878)에 풍산 홍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19세에 노사 기정진 선생에게 나아가 공부하였다. 19세(1879)가 되던 해 봄에 홍씨 부인이 죽었고 광산김

1) 이하 우고 이태로에 대한 생애는 그의 문집 초고본인 『우고선생문집』에서 추출한 내용이며, 나머지는 출전을 밝힌다.

씨를 후처로 맞이하였다. 이 해에 우고는 松沙 奇宇萬(1846~1916) · 難窩 吳繼洙(1843~1915) · 後石 吳駿善(1851~1931)과의 돈독한 도의지교를 맺고 평생을 교유하였다. 갑오농민전쟁 당시에는 장정 삼백 명을 모집하여 고을을 방어하였다. 1898년에는 포천에 가서 면암 최익현을 방문하여 李建初 · 徐相鳳 · 李文和 · 柳基一 등의 유학자들을 만나 교유하였다. 우고는 이들과 함께 〈斥倭事參三疏〉를 올려 7개월 동안 감옥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으로 총정공 민영환이 자결하자 그의 영전에 나아가 조문하였고 〈見血竹題一絕于壁〉이라는 시를 남겼다.

凌霜大節世無雙  
十月寒風血瀉腔  
萬古忠靈青化竹  
天綱不墜我東方

서리 같은 큰 절개는 세상에 다시없고  
시월 찬바람에 피를 대공에 쏟아.  
만고 충령이 푸르게 대나무로 변하였으니  
하늘벼리가 우리 동방에서 몰락하지 않음이라.

우고는 이 작품 이외에도 다른 오언율시를 지어서 민영환의 충절을 추모하였다. 한편, 그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애국적인 내용을 수집하여 기록하거나 이를 시로써 형상화하였다. 경술국치를 당한 1910년 가을에 광주 거리에서 개가 일본인을 물어죽이자 우고는 〈義狗說〉을 지어서 의로운 개를 예찬하며 이후로 다시는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전한다.

1906년에는 면암 최익현이 순창에서 의거를 일으켰다. 우고는 최상경과 함께 합류하러 가는 도중에 면암을 비롯한 주모자 13인이 이미 구금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고는 상경하였으나 면암을 비롯한 관련자 대부분이 대마도로 압송되었고 11월 17일에 면암이 순국하였다. 면암이 순국하자 우고는 제문을 지어 선생을 애도하였다. 이 시기에 우고는 면암의 의병 거사나 대마도 억류에 따른 심정을

시로 남겼다.

勉菴崔先生滯對馬島吟	면암 최선생의 대마도 체류를 읊다
丈山大義迫於燕	장산의 대의는 연나라보다 절박한데
今有先生又巨天	이제 선생이 계시어 하늘에 잇닿아 있다.
元氣由來綱不墜	원기로 말미암아 버리가 떨어지지 않았고
一身彌重四千年	한 몸은 사천년 역사에 길이 장중하리라.

이 시는 우고가 면암이 의거 실패로 대마도에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것이다. 당시 일제는 국민의 존경과 열망을 받던 면암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제는 면암의 의병 거사를 빌미삼아 선생이 한일친선을 방해한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워서 대마도로 유배시켰다. 이 시에서 우고는 면암의 대마도 유배에 즈음하여 연나라 형가의 고사를 빌어서 선생의 대의와 기상을 찬양하고 있다. 이에 앞서 우고는 면암의 순창 의거에 가는 도중에 그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발길을 되돌리면서 〈부순창미급통곡이음(赴淳昌未及痛哭而吟)〉과 같은 몇 편의 시들을 남겼다.

우고는 면암이 순국하자 선생에 대한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여 서책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하는 『면암집초』와 『면암선생문집초』이다. 우고는 조정에 올린 면암의 상소문이나 관련 기사, 더 나아가 백성들이 면암의 순국을 애도하며 지었던 〈위도가(慰悼歌)〉·〈조충가(弔忠歌)〉를 비롯한 가사 작품들도 수집하여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

우고는 일제에 빼앗긴 우리 국토를 되찾자는 내용의 〈농부가〉도 지었는데,<sup>2)</sup> 여기에는 일제의 국토 강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의식이 담겨 있다. 이것은 기존의 〈농부가〉와는 달리, ‘국토를 회복해서 우리가 농사지

어 왜놈들에게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배불리 먹자’라는 일제에 저항하는 애국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909년 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참석했던 이준 열사가 분사하였고 가을에는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하자, 우고는 면암의 영전에 나아가 이 사실을 고하였다.<sup>3)</sup> 이외에도 우고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마다 면암의 영전에 나아가 가서 알리고 있다.<sup>4)</sup> 여기에서 우리는 우고가 면암을 마음 속 깊이 존경하며 추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한 다음 해에 우고는 돌아가신 부친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又顧’로 自號를 삼았다. 우고는 도연명을 흠모하였고, ‘日月長臨, 大明正氣, 衣冠不改, 朝鮮遺風’을 좌우명으로 삼았다. 우고는 경술국치 이후로 의거의 뜻을 펴지 못한 것을 일생의 한스러움으로 여겨 문을 닫고 좌정하여 일본이 있는 동쪽을 등지고 앉아서 후진을 가르쳤다. 1919년에는 선친의 저술물인 『고암가훈(顧菴家訓)』을 발간하였다. 1914년에는 나주군수 김면수(金冕洙)가 방문하려 하자, “왜는 우리의 원수이다. 왜에게 나아간 사람과 무엇을 논할 것인가?”라고 말하면서 그의 방문을 거절하였다.

이처럼 우고의 생애와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쇠국에서 개항으로,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에 밀어닥친 외세 침략의 부당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정신으로 선비의 본분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호남의 문인이자 민족지사로 규정할 수 있겠다.

## 2.2 면암 최익현의 관련 자료

2) 앞의 책, 「雜著」, 〈농부가〉.  
 3) 앞의 책, 「祭文」, 〈設勉菴先生虛位祭文〉.  
 4) 위의 책, 「祭文」, 〈祭勉菴崔先生〉.

우고가 남긴 면암 관련 자료는 2권의 서책인데, 책명은 『면암선생문집초』와 『면암집초』이다. 둘 다 한지를 5침으로 엮은 서책이다. 크기가 전자는 30×19cm이고, 후자는 28.5×18cm이어서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크다.

전자는 표지에다 쪽물을 들였고 후자는 기름칠을 했다. 전자는 상소문·척명·주차(奏筭)·연설(筵說)등을 필사해놓은, 그야말로 면암선생의 『면암집』을 초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자는 전자처럼 면암이 쓴 상소문도 보이지만 그것보다는 선생과 관련된 신문 기사나 애도문, 가사 작품이나 만사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가 대체로 면암의 공식적인 저작물을 필사해 놓은 것에 비해, 후자는 면암과 관련된 기타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

전반적으로 이것들은 지어진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되고 있다. 『면암선생문집초』는 면암의 저작물과 다른 유학자들의 문집까지 초록해 놓았다. 이 책은 <掌令時陣所懷疏>(1868년)에서 <請討逆復衣制疏>(1895년)까지 6편의 상소문과 <正二品資憲大夫宣諭員崔益鉉>(1896)과 <勅諭>(1896)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몇 개의 상소문이 기록되어 있다. 광무 8년(1904)에 면암은 찬정 벼슬을 사양하는 상소문을 올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가 다시 여덟 차례나 올렸던 상소 기록이 담겨 있다. 그리고 면암이 처안 방해죄로 지목되어 향리인 포천에 송치되었다는 신문 기사가 적혀 있다. 여기까지가 면암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인데 모두 일백여 쪽이다. 나머지는 鼓山 任憲晦의 문집 초록인 『鼓山先生文集抄』·華西 李恒老의 문집 초록인 『華西先生文集抄』가 필사되어 있다. 『화서선생문집초』의 뒷부분에는 우고 자신이 병오년(1906) 정월에 지은 <춘첩>을, 이어서 艾山 정재규가 지은 通文과 정봉현이 지은 영재이건창의 제문 등을 적어놓았다. 따라서 이 책은 대략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면암집초부제가서』라는 책명에서처럼 『면암집』 초록을 비롯한 면암 관련 기록과 다른 인사들의 글을 덧붙여 놓았다. 이 책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勉菴稿抄』·『勉菴先生惑事實記』·『聚錄』, 그리고 송사 기우만의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勉菴稿抄』는 면암이 순국하기 직전에 을사늑약과 같은 국가적 패망의 위기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지었던 문장, 선생과 관련된 기사나 소식, 선생에 대한 애도문과 실기문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하자 면암이 백성들에게 그것의 부당성과 자신의 심회를 알리는 <謹告八道士民書>(1905), 의거를 일으켜서 왜적들을 토벌하자는 <청거의토적소>(1906), 일본 정부에게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침략에 대한 경고를 보낸 <與日本政府書>(1906)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한일친선을 방해한 처안죄로 면암이 구속되었다는 『대한매일신보』나 『만세보』의 신문기사도 보인다. 이 부분의 마지막에는 선생의 의거일기를 뽑아놓은 <舉義日記略>이 필사되어 있다.

이어서 『勉菴先生惑事實記』에는 선생의 죽음을 알리는 11월 20일자 『대한매일신보』기사문과 애산 정재규가 지은 면암에 대한 <제문>, 면암의 죽음을 알리는 釜山商務社 사장인 金永圭의 통문이 적혀 있다. 이어서 시민들과 젊은 학생들이 면암선생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가사작품과 제문들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가사와 제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서로 뒤섞여 있다. 가사 작품으로는 <위도가>·<조면암선생 영혼창가>·<니가라>·<조충가>·<최면암선생 영혼창가>의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이들 가사 작품의 사이에 수록되어 있다. 제문들도 가사체의 3·4조나 4·4조 형식을 차용하고 있는데, <기옥도제문>과 <기비봉제문>이 보인다. 당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지었던 연설문도 있다. 여기에는 8세부터 14세의 어린 학생들과 김소사를 비롯한 세 과부의 연설문도 보인다. 그런데 이것들은 대부분 부산 초량에서 지어진 작

품들이다. 이어서 면암의 순국을 알리는 긴박했던 통문들, 매천 황현이 면암선생을 애도하는 한시 <곡면암선생 8수>와 오봉영이 지은 <면암선생만사>가 필사되어 있다. 화서 이항로가 지은 면암의 증조부이신 嘉陰公 崔光肇의 묘갈명서와 김평묵이 지은 면암 선친이었던 崔岱의 묘갈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聚錄』에는 면암 관련 기록이나 선생의 민족정신과 관련된 내용, 또는 우고가 지었던 이런 저런 문장들을 모아놓은 부분이다. 광종석이 경연 선생을 사직하는 <經筵郭鍾錫辭師疏>를 시작으로 崔相景의 당호에 대해서 우고가 지은 <松汀記>, 장지연이 을사오적을 매몰치게 비판하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歎賣國諸賊>, 을사오적의 이름을 빌어 매국 행위를 자찬하는 반어적인 내용의 <賣國慶祝歌>들이 실려 있다.

끝 부분은 송사 기우만과 관련된 자료들을 필사해 놓았다. 1906년도에 노사 기정진의 손자였던 기우만이 의거를 일으키며 지었던 <松沙義通>을 시작으로 그가 10월 17일에 왜경무관을 대면하여 침략의 부당성과 조선인에 대한 가혹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하며 따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기우만의 제자였던 安圭容이 채록한 것으로 우고가 필사해 놓은 것이다. 같은 날 기우만이 일제 경무관과 필담한 내용도 함께 수록해 놓았다. 나머지는 훗날에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잡문들이다.

### 3. 『면암집초』의 가사 작품들

#### 3.1 면암의 순국과 추모가사들

1906년 11월 17일, 면암 최익현이 대마도에서 단식 끝에 순국하였다. 『매천야록』에 따르면, 당시 시신이 부산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곡성이 넓은 바다를 진동시켰다고 한다. 상인들은 회사에 호상소를 마련하고서 상여를 만들었다고 한다. 상여가 출발하자 군중들이 그것을 따라가며 펄펄 뛰면서 울부짖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렀다. 운구는 몰려든 인파로 종일토록 십리를 지나지 못했고 동래에서 출발하는 날에는 상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떠날 수 없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런 과정을 예의주시했던 일제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침내 상주에서 시신을 탈취하다시피 기차로 옮겨서 운구했다고 전한다. 당시 면암에 대한 애도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고 눈물을 흘리며 조상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국조 이래로 죽어서 슬퍼하는 것이 그같이 성황을 이룬 적이 없었다고 매천은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sup>5)</sup>

이들 작품은 대부분 10대 젊은 학생들이 창작한 우국가사들이다.<sup>6)</sup> <慰悼歌>는 김해군 공립학교 여학도들이, <吊勉菴先生 靈魂唱歌>는 사립초량학교에서, 그리고 <최면암선생 영혼창가>는 초량학교 학생들이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노래는 당시 일제 침략에 저항하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던 가사 작품들이 실렸던 『대한매일신보』에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작품들이다. 우고는 이들을 서책에다 고스란히 기록해 두었는데 당시 추모 과정에서 지어졌던 가사 작품들은 아래의 5편이다

#### 3.1.1 가사 작품들

5) 황현 지음(임형택 외 옮김), 『역주매천야록』(하), 문학과 지성사, 365~367쪽.

6) 필자는 다른 필사본도 입수하여 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들 작품의 작자가 표기되어 있다.

〈위도가〉

어와 우리 學徒들이 慰悼歌를 불너보시  
 壯히시고 壯히시고 勉菴先生 壯히시다  
 거룩하신 道德이요 炳炳히신 忠義로다  
 滄海万里 對馬島에 不屈大義 ㅎ셨도다  
 視死如歸 ㅎ신 節槩 孰不憾愴 ㅎ오리요  
 사름마다 嗚咽하고 걸리걸리 哭聲이라  
 魂歸故國 ㅎ오실시 路經金海 ㅎ엇구나  
 鯨道鰐浪 먼먼 길에 行次平安 ㅎ신잇가  
 嗚呼先生 가신후에 大韓社稷 어이할고  
 國摧棟樑이요 士失依歸로다  
 閔忠正 趙忠正은 去年에 殉節하고  
 슬푸다 우리先生 今年에 致命하니  
 烈士 忠臣이 年年에 다가지고  
 岌嶮한 우리國權 뉘가다시 回復할고  
 南山에 저 松柏은 先生의 志槩로다  
 靑天의 저 日月은 先生의 忠義로다  
 우리 金海 士女들이 致祭如雲 모이든다  
 슬푸다 學徒들이 痛哭헌번 ㅎ여보시  
 今日哭 明日哭에 우리 슬픔 다할소야  
 그러치도 아니하다 너무 과이 우지마라  
 先生을 慰勞커든 工夫(을) 着實하며  
 國家에 需用되면 泉垆下 先生魂靈  
 우리를 陰騭하여 國權回復 ㅎ오리라

〈吊勉菴先生 靈魂唱歌〉

壯히시다 壯히시다 勉菴先生 壯히시다  
 日月가탄 빛난忠義 뉘라서 가를쇼냐  
 松柏가튼 壯節槩 뉘라서 씩쓸쇼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勉菴先生 거룩하다  
 竭忠報國 ㅎ시다가 萬里他國 遠行일서  
 烟波萬里 가실씨에 杖履冠劍 儼然터니

烟波萬里 오실씨는 殲歌數曲 어인일고  
 痛哭일시 痛哭일시 先生위에 痛哭일시  
 거룩하다 先生이여 쥬금이 榮華로다  
 國事爲히 쥬거시니 자으시고 거룩하다  
 어와 우리 學徒들이 선심忠義 본을바다  
 爲國報君 ㅎ년날에 一心으로 죽어보시  
 前後左右 상두군아 멀고먼 우설질에  
 영이호상 안령호쇼 자로가시오 자로가시오  
 어허어허 잘가시오

〈니가라〉

면암선성 찬정더신 우리나라 충신일시  
 도회흔든 노중연과 경천헌던 문천상시  
 디한국의 탄성하니 면암선성 아니신가  
 니천만인 우리 동포 구제히신 면암선성  
 천리가 무상턴가 국운비식 ㅎ가  
 부산항의 ㅎ츄하야 디마도로 가시기는  
 무삼일로 가섯던고  
 황천후토 명감흡쇼 보국안민 무삼스피가  
 반양산 전횡도의 오빅의사 드러 갖니  
 슬푸도다 우리 심도 못간거신 후회로다  
 히도중의 공상키도 구제창성 그일일세  
 무스환국 바뤼터니 영결송천 ㅎ엇도다  
 면암선성 불미영혼 승피빅운 ㅎ신날의  
 상제전 신쇼하야 디한국 극복하고  
 다시세상 환성하야 디한황제 시종호쇼  
 슬푸다 우리심도 티평성세 다시보시  
 천세천세 디한황제 만세만세 디한황제

〈조충가〉

디한 광무 병오동에 인국충신 장하도다  
 삼천년 우리강토 자주독립 ㅎ셨도다

말니창허 절도중의 일편단정 위인일고  
우리혹도 열심하야 선성충의 본을 밋시

〈최면암선성 영혼창가〉

통곡일시 통곡일시 면암선성 연관이여  
슬허할이 슬허홀이 말리타국 반구로다  
우리혹도 사문에는 일월(이) 회명일시  
우리혹성 무복하야 원로충신 영결일시  
산악가탄 도덕이요 송빅갓탄 절기로다  
효제충신 다반이요 공안정주 김장이라  
우리국세 보전하야 우국심성 간측일시  
주야로 심각훈바 종묘사죽 안쥬로다  
슈족이 갈어토록 심력이 탄갈일시  
충이니쓰 명폐하야 육역부위 심썬로다  
탕화부리 불탄이요 백언모리 불피로다  
불형일시 불형일시 니역원형 불형일시  
만이창과 가실씨는 장구엄연 하시더니  
말이풍랑 오실씨는 영혼만 돌아오니  
훈풍이 쇼슬하야 빅일이 무광이라  
우리창성 일국눈물 가이모아 디강일시  
우리창성 만강역혈 가이토히야 디히로다  
침침철야 혼구중에 뉘가다시 점촉되리  
슬푸다 우리혹도 빅세종사 영결이라  
뉘를다시 위로하며 뉘가다시 지로홀고  
어와 우리 디훈국인 선성충의 본을바다  
진충보국 혼연후에 선성충혼 위로하시  
궁천만고 불미존령 서사흠겨 흠소서  
빅설분분 천리쥬도 식준안귀 흠소서  
오호통곡 오호통곡 오희오희 오희오희

### 3.1.2 형식과 내용

이들 노래는 ‘~창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형태는 오히려 가사에 가깝다. 창가는 개화기부터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면서 그것의 형태나 출현 시기를 한 마디로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창가는 개화기 시가 중에서 연구자들의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양식이기도 하다. 창가는 애국가의 유형에서 분화한 것으로 가창을 전제로 한 점에서 서로 일치한다. 분연법에서도 애국가 유형의 2행연에서 4행연으로 변화한 것이 창가의 일반적 속성이며, 그것은 7·5조, 8·5조, 6·5조를 기조로 하고 있다.<sup>7)</sup> 물론, 1907년에 설립된 계명의숙의 교가인 〈본속창가〉처럼 4·4조의 가사 형식을 따라 지어진 학교창가도 있다.

면암에 대한 이들 애도가들은 4·4조를 기본으로 2구가 한 연을 이루는 전통적인 가사 형식이고, 표기는 漢主國從體이다. 이들 노래는 1906년도 11월에 면암이 순국하고 유해가 대마도에서 부산으로 들어오자 10대의 젊은 학생들이 지은 노래들이다. 이들 노래는 한결같이 면암의 도덕과 충절을 찬양하면서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해 저항의식을 드러내면서 국가 존망에 대한 염려와 함께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면암을 추모하는 이들 노래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민영환을 추모하는 가사 작품과 형태나 표현이 비슷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5년 12월부터 1907년 1월까지 민영환의 순절을 추모하고 찬양하는 〈명충가〉·〈해로가〉·〈민충정혈죽가〉·〈추도가〉·〈모충교가〉등의 가사 작품들이 비슷한 시기에 쏟아져 나왔다.

7) 김학동, 「개화기시가」,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편), 새문사, 371~372쪽.

〈가〉

精忠일네 精忠일네/ 우리閔公 精忠일네.  
大節이네 大節일네/ 우리閔公 大節일네.  
이忠誠 이節概는/ 萬古에도 쪽이없네.  
빛치나네 빛치나네/ 大韓山川 빛치나네.  
(이하 생략)<sup>8)</sup>

〈나〉

於我億兆 蒼生들아/ 三綱五倫 힘을쓰오.  
廣大한 天地間에/ 萬古忠臣 生覺허니  
富國安民 極盡함이/ 閔忠正公 아니신가.  
어서가즈 빛비가즈/ 萬古忠節 여괴로다.  
(이하 생략)<sup>9)</sup>

1905년에 을사늑약을 당하자 충정공 민영환이 자결하였다. 〈가〉는 민충정공의 장례 발인에서 영어학도들이 지었던 〈해로가(薤露歌)〉이고, 〈나〉는 경성의 사녀들이 지은 〈爲國效忠歌〉이다. 이들 형태는 면암의 애도가들과 마찬가지로 4·4조를 기본으로 2구가 한 연을 이루는 전통적인 가사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내용에서도 민충정공의 충절을 찬양하면서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의 일부이다. 한 마디로 면암의 충의와 절개를 찬양하며 선생의 순국을 애도하는 노래들은 이것들과 거의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가〉에서 4·4조를 기본으로 하는 각각의 2구가 반복되는 것은 〈吊勉菴先生 靈魂唱歌〉에서의 “壯흥시다 壯흥시다 勉菴先生 壯흥시다”와 같은 AABA의 반복과 점층으로 이뤄진 표현 방식이다. 1906년 11월에 면암이 순국하고서 젊은 학도들이 지었던 노래들은 여

8) 〈薤露歌〉, 『대한매일신보』(1905.12.21일자)

9) 〈爲國效忠歌〉, 같은 신문(1906. 2.10일자).

기 민충정공을 찬양하며 애도했던 노래들과 형태나 표현 기법이 서로 상통한다. 한 마디로 면암을 추모하는 노래들은 민영환을 추모하는 그것들과 같은 유형의 노래라고 하겠다.

구자균은 이들 노래들을 ‘한말우국경시가’로 규정하였는데,<sup>10)</sup> 송민호는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독립신문』에 실린 애국·독립가 유형을 ‘개화시’로,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가사 형식을 ‘개화가사’로 규정하고 있다.<sup>11)</sup> 따라서 논란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면암선생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이들 노래는 창가가 아닌 애국계몽기의 개화가사로 여겨진다.

### 3.2 <매국찬양가>의 반어적 어법

#### 3.2.1 작품 원문

〈賣國慶祝歌〉

代賣國大臣

慶祝일싸 慶祝일싸 新明文에 捺章하야  
大韓 三千里를 一手販賣 흥였시니  
口文이 不多로다  
富貴榮華 自取하니 身外無物이라  
國家는 何用이며

慶祝일싸 慶祝일싸 韓國大臣 交椅爭奪者 何人이며  
日本帝國 大勳位는 一平生 榮耀로다

10) 구자균, 한말우국경시가에 대하여, 『文理論集』 제4집, 고려대출판부, 1959, 282쪽.

11) 송민호, 『한국시가문학사』 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1, 910쪽.



天上天下에 惟我獨尊하야  
 勢力重熾 自取하니 身外無物이라  
 國君은 何用인고

我命在天 誰가 敢이 誰기자고  
 정청인지 북각인인지 一般逆賊 元老公卿  
 憲兵隊가 제격일싸 強國功勳 自取하니  
 身外無物이라  
 國論이 何用인고

慶祝일싸 慶祝일싸 屬國되면 誰가 알며 領土되면 誰가알이  
 니 富貴가 地位야 三頭六臂 어니 놈이 或하야보게  
 如此하면 輪艇타고 日本東京 誰고지라  
 綽綽餘地하니 身外無物  
 國土 何用일고

慶祝일싸 慶祝일싸 二千萬 生靈 다 誰거도 惟吾獨生 第一일싸  
 無衣無食 할리잇나 無金無帛 하단말가  
 高臺廣室 如家舍에 絶代佳人 行樂하고  
 錦衣玉食 自取하니 身外無物이라  
 國民 何用인고

어와 五賊아 너의말를 들어보라  
 無君父하 五賊놈아 爾之所行이 犬豕不如하다  
 爾之妻도 倭놈주고 爾之女도 倭놈주에  
 爾之自樂 誰取하니 犬豕不如 五賊놈아

### 3.2.2 형식과 내용

〈매국경축가〉는 1905년 12월 1일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개화  
 가사이다.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 7월 18일에 창간되어 1910년 8월

28일에 한일합방과 함께 폐간되었다. 민족지사들이 참여했던 이 신문은  
 암울했던 애국계몽기에 민족의 각성과 함께 항일 의식을 일깨우던 당대  
 의 대표적인 민족언론지였다.

이 신문은 1905년 9월 3일에 〈가역비장(歌亦悲壯)〉을 시작으로 폐  
 간 직전이었던 1910년 3월 25일의 〈철추가(鐵椎歌)〉까지 애국·독립  
 가 유형의 가사 작품들을 게재하였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가사 형식에  
 민족적 울분을 토로하거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풍자적  
 이고 반어적인 어법으로 시대정신을 표현하기도 하였고, 반복구를 사용  
 하며 가사에 비해 짧은 형태를 시험하기도 하였다.

이 같은 새로운 형식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매일신보』 특  
 유의 가사로 만들어진 것이 〈매국경축가〉이다.<sup>12)</sup> 본래의 〈매국경축가〉  
 는 전체 5연으로 이루어진 노래이다. 반면에 여기 우고가 기록한 그것  
 은 마지막 부분에 1연이 첨가되어 모두 6연으로 되어 있다. 우고의 서  
 책에는 행이나 연의 구분도 없으며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  
 지만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부분에 이르면 유사 어구가 주기  
 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國家는 何用이며’를 시작으로 ‘國君  
 은 何用인고’·‘國論이 何用인고’·‘國土는 何用일고’·‘國民은 何用인고’  
 로 반복되면서 각각의 연을 구성하는 일정한 짜임을 갖추고 있다. 이것  
 을 중심으로 행련을 분간하면 6연 형태로 고정된다. 처음 1연부터 5연  
 까지는 을사오적의 입을 빌어 매국한 것을 자찬하는 반어적 효과를 노  
 리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연에 이르러서는 교술적 화자로 보이는  
 인물이 을사오적을 향하여 아내와 딸을 왜놈에게 주라고 욕설을 퍼부으  
 며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자가 달라지는 6연은 우고가  
 첨가하여 개작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 첨가한 것을 우고가 필사

12)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279쪽.

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우고의 서책에 기록된 〈매국경축가〉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본래의 작품과 비교해보면, 표기법의 변화가 있었고 부분적으로 어구가 생략되거나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우고의 서책에는 ‘慶祝일싸 慶祝일싸 新明文에 捺章호야’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한매일신보』의 ‘慶祝일시 慶祝일지 新明文에 捺印호야’의 표기법을 바꾼 것이다. 우고는 ‘~일시’나 ‘~일지’를 ‘일싸’로, ‘捺印’을 ‘捺章’으로 적고 있다. 이어서 우고의 ‘大韓 三千里를 一手販賣 호였시니 口文이 不多로다’는 신문에서 ‘大韓江山 三千里를 一手販賣 호얏스니 口文이 不少로다’를 바꾼 것이다. 3연에서 우고는 아예 ‘慶祝일시 慶祝일시 이니 一身 경축일시’로 시작하는 어구를 생략하고 있다.

이처럼 우고가 기록한 〈매국경축가〉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그것에 비해 보다 근대적인 표기로 바뀌고 있고 부분적으로 어휘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에 없었던 6연이 새로이 첨가되면서 작품의 어조가 달라지고 내용이 강화되는 변화를 보인다. 문학사적으로 〈매국경축가〉는 앞서 나왔던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애국·독립가 유형의 가사 작품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노래는 일제 침략의 사회상을 고발했던 사회등가사의 출현에 앞서 나왔던 개화가사의 일종으로 보인다.

#### 4. 『면암집초』의 자료적 가치

우고 이태로는 학자 이전에 선비로서 시대정신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

던 인물이다. 그는 젊은 시절에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드나들었고, 한편으로 척사위정의 선봉에 섰던 면암 최익현의 삶과 정신을 본받으려 노력했다. 우고는 면암이 살아있을 때에는 선생을 존경하며 따랐고 순국한 뒤에는 그의 행적을 좇아 관련 기록이나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록하였다. 이번에 새로 발굴된 우고의 『면암선생문집초』와 『면암집초』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내용들이다. 다만 『면암집초』에 있는 5편의 우국가사들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가사 작품들이다. 이들 작품은 본격적인 분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이한 내용들이지만 애국계몽기 시가문학의 한 단면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들은 면암이 순국하기 일 년 전에 자결했던 충정공 민영환을 애도하는 우국가사들과 같은 유형의 개화가사로써 서로 좋은 짝을 이룬다.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매국경축가〉도 우고의 『면암집초』에 필사되어 있었다. 그런데 우고의 그것은 신문에 실렸던 원전 그대로의 필사가 아니라, 우고나 누군가의 첨삭 과정을 거쳐서 본래의 모습에서 사뭇 달라진 가사 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책에는 이외에 몇몇 자료들이 눈에 띈다. 우고 자신이 지었던 〈춘첩〉이나 송사 기우만이 왜경과 대립각을 세우며 논쟁했던 기록들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자료들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서책에는 우고 이태로의 면암 최익현에 대한 외경심과 추모 의식이 담겨있다는 사실이다. 우고는 호남의 궁벽진 곳에 살면서 신문이나 잡지, 기타 기록에 나타난 면암 관련 자료들을 추적하였고 그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기록해 두고 있다. 우고는 이들 자료 외에도 장례식에서 읽혀졌던 제문이나 연설문들까지도 수집하여 서책에 기록해 두고 있다. 게다가 우고가 자신의 학통을 이어받은 노사

계열뿐만 아니라 화서계열의 면암 최익현을 보다 존경하며 따랐다는 점도 시사해주는 바가 많다.

## 5. 맺음말

본고는 우고 이태로(1848~1928)가 일제에 맞서 싸우다 순국했던 면암 최익현(1833~1906)에 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면암선생문집초』와 『면암집초부제가서』에 대한 논의이다.

먼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우고 이태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고는 조선 말기에 학문과 효행으로 이름이 높았던 고암 이경근의 아들이었고 노사 기정진의 문인이었다. 우고는 노사의 손자였던 송사 기우만을 비롯한 한말의 호남문인들과 가깝게 지냈고 기호지방의 유학자들과도 교류하였다.

우고의 면암에 대한 존경심은 남달라서 여러 차례 선생을 방문하여 가르침을 받은 바 있다. 그는 면암의 행적을 좇아서 시나 문장으로 남겼고 면암 사후에는 여러 차례에 제문을 지은 바 있다. 우고는 이준열사의 헤이그 분사나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과 같은 일대 사건이 터지면 반드시 면암 영전에 나아가 아뢰었다. 우고에게 면암은 정신적인 사표였고 스승이었다.

우고는 면암이 1906년 11월에 대마도에서 순국하자 그와 관계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에 공개하는 『면암선생문집초』와 『면암집초부제가서』이다. 대체적으로 전자가 기존에 알려진 면암의 공식적인 저작물을 필사해 놓은 것에 비해서, 후자는 면암과 관련된 가사 작품이나 여러 부수적인 자료들을 포함하여 기록으로 남기

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다. 특히 후자에는 면암이 대마도에서 순국하고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어졌던 〈위도가〉·〈조면암선생 영혼창가〉·〈니가라〉·〈조충가〉·〈최면암선생 영혼창가〉의 가사 5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들은 4·4조를 기본으로 2구가 한 연을 이루는 개화가사들이다. 내용은 면암의 충절을 찬양하면서 선생의 죽음을 애도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작품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의식을 드러내면서 국가 존망에 대한 염려와 함께 국권 회복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면암을 추모하는 이들 노래는 당대에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민영환을 추모하는 가사 작품과 형태나 표현이 유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매국경축가〉도 필사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에 실렸던 원전 그대로의 작품이 아니라, 우고나 누군가의 개작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신문에 실렸던 〈매국경축가〉는 본래 5연으로 이루어진 노래였다. 반면에 여기 우고가 남긴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1연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처음 1연부터 5연까지는 을사오적의 입을 빌어 매국한 것을 자찬하는 반어적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다가 마지막 6연에 이르러서는 교술적 화자로 보이는 인물이 을사오적을 향하여 아내와 딸을 왜놈에게 주라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개돼지보다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화자가 달라지는 6연은 우고가 첨가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 의해 첨가된 것을 우고가 필사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고가 기록한 〈매국경축가〉는 『대한매일신보』에 실렸던 그것에 비해 보다 근대적인 표기로 바뀌고 있고 부분적으로 어휘가 달라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다만, 『대한매일신보』에 없었던 6연이 첨가되면서 작품의 어조가 달라지고 의미가 강화되는 변

화를 보인다.

■ 참고문헌

『우고선생문집』(초고본, 필자 소장본)

『又顧先生遺稿』(국립도서관 소장본)

『만세보』

『대한매일신보』

『역주매천야록(하)』(황현 지음, 임형택 외 옮김), 문학과 지성사

구자균, 「한말우국경시가에 대하여」, 『文理論集』 제4집, 고려대출판부, 1959, 282쪽.

김학동, 「개화기시가」, 『국문학신강』(국문학신강편찬위원회편), 새문사, 371~372쪽.

송민호, 『한국시가문학사』 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71, 910쪽.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4, 지식산업사, 1994, 279쪽.

<투고일 : 2007. 6. 30. 심사일 : 2007. 7. 16. 심사완료일 : 2007. 8. 10.>

<Abstract>

Ugo(又顧) Lee Tae-ro(李泰魯)'s 『Myeonamjipcho (勉菴集抄)』 and the value of as a material

Gu, Sa-whae

When Myeonam(면암) Choi Ik-hyeon(최익현) died in Tsushima in November 1906, Ugo Lee Tae-ro began to collect materials related to Myeonam. The materials were compiled in two works 『Myeonam-seonsaeng-munjip-cho(면암선생문집초)』 · 『Myeonamjip-cho-bujegaseo(면암집초부제가서)』, which are released along with this study. The former work consists of Myeonam's writings that are already available to the public. The latter, however, includes hitherto unknown poetry and other materials that are related to Myeonam.

In particular, the latter includes five pieces of gasa (narrative poem) that were written by a number of people after Myeonam's death in Tsushima. The poems were written in Gaehwa - gasa (개화가사) style in which 4.4 meter is the basic form and two phase form one stanza. The poems praise Myeonam's loyalty and mourn over his death. The collection also includes a handwritten version of <Maegukgyeongchukga(매국경축가)>. The version is different from the one published in the newspaper as it was revised by Ugo or some other person. The version published in

the newspaper was composed of five stanza whereas the Ugo version has one more stanza at the end of the poem. There is no change in overall meaning of the poem. However, the new stanza changes the tone of the work and strengthens its meaning.

**Key word** : Ugo Lee Tae-ro, Myeonam Choi Ik-hyeon, Gaehwa - gasa, 『Myeonam-seonsaeng-munjip-cho』, 『Myeonamjipcho-bujegaseo』, 〈Maegukgyeongchukga〉.